



# 대구광역시

市花 : 목련      市鳥 : 독수리  
 市木 : 전나무      캐릭터 : 패션이  
 시청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시장 : 권영진(權泳臻)



## 개 관

**연혁** 달서구 월성동에서 구석기시대 유물인 좀돌날 석기가 포함된 유적이 확인돼 대구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한 때는 대략 2만~1만 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기원전 1세기 무렵엔 지금의 달성토성을 중심으로 달구벌국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사기에는 신라 첨해 이사금 15년(261년)에 달벌성을 쌓았다는 기록이 있다. 689년(통일신라 신문왕 9년) 신라가 도읍을 경주에서 달구벌로 옮기려고 시도했을 만큼 대구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다.

고려 초기 대구지역은 수성군, 대구현, 해안현으로 나뉘었다. 1419년(조선 세종 1년) 대구현이 대구군으로 승격됐다. 1466년(세조 12년) 도호부가 설치돼 군사적 중심지의 역할이 높아졌다. 1601년(선조 34년)엔 경상감영이 설치됐다. 1658년(효종 9년) 대구객사 주변에 약재시장이 개설되면서 약령시의 호시가 됐다. 이로써 대구는 영남지역의 행정·교통·군사를 통할하는 명실상부한 중심지역이 됐고, 해안현, 하양현, 경산현, 수성현, 화원현, 하빈현을 거느린 큰 도시로 성장했다.

'대구(大邱)'라는 이름은 신라 경덕왕 16년(757년) 주·군·현 명칭을 한자명으로 고칠 때 처음 사용됐고, 현재와 같은 '대구(大邱)'라는 한자 명칭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은 1778년(정조 2년)부터다. 1896년 전국이 13도제로 개편되면서 대구군으로 개칭됐다가, 1910년 대구부로 다시 바뀌었다.

일제 침략이 시작되던 1907년 김광제, 서상돈이 중심이 돼

### 대구광역시 면적·가구·인구

(2017년 12월 31일 현재)

구분	면적(km <sup>2</sup> )	가구(세대)	인구(명)
합계	883.56	1,006,753	2,475,231
중구	7.06	37,856	78,986
동구	182.18	148,719	349,379
서구	17.33	86,738	191,992
남구	17.44	73,442	152,845
북구	94.07	174,617	441,375
수성구	76.46	164,900	439,211
달서구	62.34	224,583	578,068
달성군	426.68	95,898	243,375

\* 외국인(2만6천442명) 별도

'국채 1천300만원 보상 취지서'란 격문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과 1960년 4·19 민주혁명의 기폭제가 됐던 '2·28 학생의거' 등 나라의 중요한 고비마다 대구는 빛나는 향도 역할을 해왔다.

1981년 7월 1일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월배·성서·공산 지역을 비롯해 칠곡과 인심, 고산지역을 편입해 시역을 454.95km<sup>2</sup>로 확장한 데 이어 1995년 1월 1일 광역시로 명칭이 변경됐다. 1995년 3월 1일 낙동강을 낀 달성군 전역이 편입되면서 시역이 885.51km<sup>2</sup>로 크게 확장됐다.

**면적·인구·행정구역** 동쪽은 경상북도 경산시, 서쪽은 경상북도 성주군과 고령군, 남쪽은 경상북도 청도군과 경상남도 창원군, 북쪽은 경상북도 칠곡군과 군위군 및 영천시와 접해 있다. 총면적은 883.56km<sup>2</sup>(전 국토의 0.9%)며 개발제한구역이 401.18km<sup>2</sup>로 전체면적의 45.4%를 차지한다. 총인구는 247만여 명이며, 행정구역은 7자치구·1군에 읍·면·동 139개, 법정동·리 290개, 통·리 3천647개, 반 2만4천338개가 있다.

## 재 정

2018년도 본예산 규모는 시와 자치구·군을 합해 총 11조5천205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9조4천201억원, 특별회계가 2조1천4억4천400원이다.

시 본청 예산 규모는 총 7조7천274억원(일반회계 5조6천972억원, 특별회계 2조302억원)으로 일반회계기준 세출예산은 사회복지분야 40.4%, 일반공공 및 질서안전 19.6%,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분야 13.3%, 교육분야 9%, 산업·중소기업분야 5.4% 등으로 편성했다.

### 2018년도 대구광역시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천원)

회계별	2018 예산액	2017 예산액	증감
합계	7,727,440,000	7,085,800,000	641,640,000
일반회계	5,697,200,000	5,323,100,000	374,100,000
특별회계	2,030,240,000	1,762,700,000	267,540,000
공기업	685,200,000	550,900,000	134,300,000
소계	281,000,000	245,000,000	36,000,000
상수도사업	404,200,000	305,900,000	98,300,000
하수도사업	1,345,040,000	1,211,800,000	133,240,000
도시철도사업	361,900,000	310,100,000	51,800,000
교통사업	128,340,000	137,000,000	-8,660,000
의료급여기금	450,600,000	400,500,000	50,100,000
산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	42,500,000	34,400,000	8,100,000
중소기업육성기금	67,000,000	67,000,000	0
광역교통시설	10,300,000	9,800,000	500,000
수질개선	3,700,000	3,100,000	600,000
기반시설	1,700,000	1,500,000	200,000
경부고속철도변경사업	18,300,000	18,700,000	-400,000
재정비축진	200,000	600,000	-400,000
소방안전	244,500,000	229,100,000	15,400,000
학교용지부담금	16,000,000	16,000,000	0

## 중점 추진사업

**역동적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과 **기술혁신 역량 제고** 청년벤처창업펀드(C-Fund), 벤처·스타트업투자펀드, 엔젤투자매칭펀드를 조성해 운영하고, 대구팁스(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 프로그램으로 '아이디어→창업→창업 후 성장→회수 및 재도전'으로 이어지는 창업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했다.

100조원대로 추정되는 중국 물시장 공략에 나서고 미래형 자동차산업에 적극 투자했다. 국내외 우량기업 46개사를 유치하고 사회적기업 36개를 육성하는 한편 맞춤형 여성 일자리를 발굴했다. 골목상권 보호정책으로 1전통시장 1특성화 정책을 펴고 전통시장진흥재단을 설립했다.

**활기찬 도심재창조로 기분 좋은 변화 시작** 새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3개소가 신규 선정돼 국비 25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도시재정비촉진 및 도시정비사업(155개소)을 추진했고 빈집 53동을 정비하는 등 지역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벌였다. 또한 성서 1·2차 산업단지를 혁신·재생사업으로 선정하고 제3·서대구·염색산단 재생사업을 추진했다.

**스마트시티 기반 조성을 위한 대구 3D 지도 구축** 관내 모든 건물을 3D로 재현한 3D 지도 구축사업을 완료했다. 어떤 건물 이든 조망·일조·가시권 및 경관 분석이 가능하고 3차원 측정 기능, 주요 관광코스 가상 투어, 주요 환승역 실내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실거래가·부동산 정보·지적도·버스 정보 등을 3D와 융합해 제공하는 등 스마트시티 기반 조성에 노력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대구복지** 5대 영역 70개 사업에 대한 복지기준 마련, 사회복지관 3개소 리뉴얼,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 등 대구형 시민복지 정책을 발굴·시행했다. 발달장애인을 위해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고 홀몸노인 2만2천835명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했으며, 경중치매노인 기억학교 12개소를 운영했다.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시민건강놀이터'를 개소하고 보건의료기관(중구보건소, 서구 비원건강증진센터)을 신축했다. 치매안심센터 8개소와 각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운영했다.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안전도시 실천**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찾아가는 공연 확대, 시민공감센터 건립, 버스킹 공연장 조성 등 시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즐기고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완료(5월), 안심귀갓길 Safe-Zone 확대(30개소), 방범무인 택배 시스템 시범 운영(10개소) 등 생활밀착형 안전정책을 실행했다. 2월 지진방재 5개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7월 재난방송협의회를 구성해 재난대응 역량을 높였다.

**국제행사 성공적 개최로 글로벌 대구 기반 구축** 국제노선 증설로 대구국제공항 이용객 250만 명 시대를 열고, 해외의료관광객 2만 명을 유치했다. '2017 대구세계 마스터스 실내육상경기대회'에 75개국 4천703명이 참가했다.

**광역경제권 육성을 위한 경제공동체 건설** 대구경북 상생을 위해 5대 분야 29개 과제를 선정하고 구미~대구~경산 간 광역철도 건설 추진으로 대구경북 간 협력을 강화했다. 대구·광주 '달빛동맹' 협력과제로 5대 분야 23개를 선정해 민간교류 활성화에 노력했다.

**소통과 협치로 신거버넌스 모델 창조** 주민참여예산제, 현장소통시장실 운영, 시민원탁회의, 두드리소(민원·제안·콜 통합시스템) 구축, 120달구벌콜센터 확대 운영 등 시민참여 행정체계를 강화했다.

**K-2·대구공항 통합이전 대역사 시작** 소음·고도제한 등으로 도시발전의 걸림돌이 돼 온 K-2기지를 대구공항과 함께 통합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세미나 및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했다.

## 산업

**개요**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639억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197억원, 대구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101억원 등 국비 3조43억원을 2018년도 예산으로 확보해 미래성장 연구개발(R&D)사업 기반을 마련했다. 노사정 평화 대타협 선포, 기업애로사항 전담부서 운영, 국가산단 및 침복단지 투자 유치(46개사 6천713억원)로 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국가산업단지 1단계 구역 기업 입주와 2단계 구역 부지 조성 착공,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연구기관 및 기업 유치, 테크노폴리스 기반 조성 완료, 혁신도시 중심 신지역성장 거점 구축 등 미래 지역경제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대규모 국책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했다. 취약 소상공인 보호, 소비촉진 등 4개 분야 11개 과제로 이뤄진 서민경제 안정화 대책을 수립해 추진했다.

**제조업** 2016년 기준 10인 이상 사업체 수는 3천324개로, 11만860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10조8천449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산업 비중은 부가가치 기준으로 기계 금속 42.4%, 섬유·의복 13.2%, 자동차·운송장비 17.9%, 전자부품 3.8%, 기타 제조업 22.7%다. 2015년 대비 사업체 수는 26개, 종사자 수는 2천253명, 부가가치는 3천567억원이 증가했다.

**유통** 관내 유통시설은 백화점 9개, 쇼핑센터 7개, 대형마트 21개, 전통시장 151개 등이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인 서문시장 야시장을 개장했다. '1전통시장 1특성화' 공모사업으로 골목형 시장(관문상가시장 외 6개), 문화관광형 시장(신매시장, 서남신시장), 청년상인 창업(서부시장), 청년몰(산격종합시장, 현풍도깨비시장)을 선정했다. 온누리 상품권 판매(1천116억원),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등을 통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였다. '1전통시장(18개소) 1대형마트(18개 점) 전담지원제' 협약체결 및 지역우수상품 품평회를 통해 대중소 유통업체 간 상생협력을 추진했다.

프랜차이즈 사관학교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역량을 강화했다. 스타가게 8개소를 선정, 홍보해 관광객 유치와 골목상권 보호에 힘썼다.

**금융** 2017년 기준 금융기관 점포 수는 657개소, 총수신액은 85조5천445억원, 총여신액은 95조3천971억원이다. 지

역 중소기업 창업 및 시설현대화 자금 등 맞춤형 자금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기업·소상공인에 신용보증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에 필요한 산업인력 양성과 정보 제공을 강화했다.

**무역** 2017년 말 기준 수출 72.1억 달러, 수입 44.3억 달러로 27.8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중국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여파와 국제유가 불안 등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수출이 3억 달러가량 증가했다. 주요 수출 품목은 기계(48.9% 중 자동차부품 16.3%), 섬유(14.1%), 전자·전기(12.6%), 화학공업(9.3%), 철강금속(6.5%) 등이며, 주요 수출국은 중국(21.7%), 미국(17.4%), 일본(7.3%), 베트남(6.0%), 멕시코(4.0%) 등이다.

수출 확대를 위해 베트남·인도·아프리카·중동 등 유망 신흥시장 중심으로 무역사절단을 파견하고 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해 수출 다변화를 유도했다. 해외지사화사업 참가, 해외 시장 정보 조사, 통·번역 지원, 국제 특송 물류비 지원, 수출 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마케팅 지원 활동도 폈다.

**벤처창업 활성화 및 벤처기업 성장 지원** 2017년 현재 창업 보육센터 12개소 운영, 보육공간 732실 제공, 8개 펀드 1천179억 조성, 42개 지원사업 운영 등 창업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 사업(입주기업 사업화 지원 및 실태조사,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추천 등 판로 지원)을 통해 지역 벤처·중소기업 성장 지원은 물론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혁신 인재 양성**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육성(LINC+)사업,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 산업현장 핫라인센터 운영 등 대학의 우수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생산현장 애로기술 해소와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을 높였다. 산학협력 대학교육시스템을 개선하고 산업체가 요구하는 전문실무 능력을 갖춘 융복합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취업률을 끌어올렸다.

**도시혁신 기반의 대구형 스마트시티 조성** 2015년부터 시민 삶의 질 제고와 미래산업 육성을 목표로 대구 전역을 테스트 베드로 하는 혁신기술 리빙랩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 2030 미래성장 PLAN과 스마트시티 산업전략을 수립하고 2017년 1월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스마트시티 기반 확보를 위해 2016년 6월 구축·개통한 국제표준 IoT를 활용해 검침으로 지역인 달성군 가천면 전역에 상수도 원격검침서비스 구축을 완료(2017년 7월)했고, 8월 국제보상운동기념공원을 국내 첫 스마트공원으로 조성했다. 수상알파티를 토달 테스트베드 형태의 스마트시티 리빙랩으로 조성해 대구형 스마트시티 모델을 제시할 계획으로 현재 자가망, 전기공사 등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2018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플랫폼과 13개 서비스를 구축 중이다.

**에너지 신산업 육성** 매년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 및 대한민국 LED 산업전을 개최하고 2021년 세계가스총회(WGC 2021)를 유치함으로써 청정에너지 도시로서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테크노폴리스 분산전원형 에너지자족도시 조성, 대구국가산단 블록형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사업, 스마트그리드 확산 사업 등 신에너지 시장 창출로 관내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노력하고 있다.

## 사회

**공원·녹지** 공원·유원지 계획 면적은 80.2km<sup>2</sup>로 2016년 말 현재 509개소, 53.2km<sup>2</sup>를 조성 완료하고 30개소 18.5km<sup>2</sup>는 조성 중이다.

**상수도** 하루 154만을 생산할 수 있는 6개 정수장을 보유하고 있다. 상수도 보급률은 99.9%, 한 사람당 하루 급수량은 311ℓ다.

**하수도** 하수처리장 7개소, 하루 처리량 187만으로 하수를 100% 처리하고 있다. 달성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하루 1만2천 폐수를 공업용수로 재이용하고 있으며 비점·완충처리시설 85만9천m<sup>2</sup>를 설치해 오염물질 하천 유입량을 대폭 줄였다. 지속적인 하수관거 개선사업과 도심 지천에 유지용수 공급 등 적극적인 환경시설 투자로 수질 개선율(98.1%) 전국 1위를 달성했다.

**보건·위생** 의료기관 등 4천650개소(의료기관 3천667곳, 치과기공소 336곳, 안경업소 595곳, 안마시술소 19곳, 안마원 31곳, 접골시술소 1곳, 침구시술소 1곳), 약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업 6천68개소, 공중위생업 1만2천101개소, 식품위생업 5만3천357개소, 음악·게임업 3천385개소가 있다.

**환경** 초미세먼지 20% 저감을 목표로 폐기물에너지화(SRF)시설 본격 가동과 노후 소각시설 교체, 하수찌꺼기 건조연료화 추진 등 환경기초시설을 개선했다. 매립가스자원화(CDM)사업으로 폐기물을 자원·에너지화했다. 2천817억원을 투자해 64만9천m<sup>2</sup> 규모의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조성, 롯데케미칼을 비롯한 물기업 20개사를 유치했다.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6만5천831가구에 10만3천132명이다. 사회복지시설로는 생활시설 337개소(노인 264곳, 장애인 53곳, 정신 12곳, 결핵 1곳, 노숙인 7곳)와 이용시설 1천746개소(사회복지관 26곳, 경로당 1천488곳, 노인복지관 17곳, 재가노인시설 9곳, 시니어클럽 8곳, 장애인시설 104곳, 노숙인 시설 3곳, 정신요양시설 9곳)가 있다.

**근로복지** 지역 산업체 노동조합은 177개로 2만8천24명이 가입돼 있으며,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근로자 체육대회,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노사화합상 시상 등 근로자 복지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상생 협력 노사관계 구축의 노력으로 2017년 10월 고용노동부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 교육·문화·체육·관광

**교육** 학교 수는 총 840개교(대학원 포함)로 유치원 367개소, 초등학교 228개교, 중학교 125개교, 고등학교 93개교, 전문대학 9개교, 대학교 4개교, 대학원 4개교, 산업학교 1개교, 특수학교 9개교 등이 있고 학생 수는 45만6천692여 명이다. 중앙도서관을 비롯한 공공도서관 37개소가 있다.

**문화** 대구의 축적된 음악 자산과 인프라, 인적 역량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가입이 11월 1일 확정됐다. 중국 창사시, 일본 교토시와 함께 전통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활발한 문화교류를 했다.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대한민국 연극제 등을 개최하고 소공연장 특화 거리 조성 및 창작공연 제작 지원을 통해 민간 소공연장의 자생력을 강화했다.

1907년 대구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확산된 국채보상운동 관련 기록물이 10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고 2·28 민주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경상감영지 국가사적 지정 및 복원, 달성토성 복원, 구암동 고분군 복원, 대구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조성 등을 통해 역사문화 자원의 발굴과 창조적 재생에 노력했다.

문화콘텐츠 창업부문에서도 가시적 성과를 거둬 콘텐츠코리아랩이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다. 스마트벤처 캠퍼스는 2017년 현재까지 260팀의 창업을 지원했다. 이외에도 지역 게임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출판산업지원센터 운영 등 문화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체 육** 3월 2017 대구세계마스터즈실내육상경기대회와 4월 대구국제마라톤대회 등 각종 국제대회를 개최했고 국가 간 스포츠 교류로 스포츠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 부족한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복합스포츠타운, 구·군국민체육센터, 금호강변 체육시설, 동네체육시설 등 스포츠 인프라 건립에도 주력했다.

**관 광** 6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대구 제1호 관광지로 비슬산을 지정했다. 서문시장이 문체부 주관 '한국 관광의 별'에 선정되는 등 관광도시로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사드와 북핵 위기 돌파를 위해 일본·대만·홍콩·동남아 신시장 개척에 나서 전세계 7대(방콕 1대, 하노이 1대, 대만 5대)를 유치했고, '대구공항 입국 관광객'이 2016년 대비 대만 89%, 일본 185%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관광정책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2016년 10월 설립한 대구관광부료를 관광 전담조직으로 지정해 2017년 1월부터 관광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2020년 1천만 명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20 대구 관광의 해'를 선포하고 2021년 대구세계가스총회와 연계해 추진하기로 했다.

## 의회활동

### 원 구성

〈의 장〉 류규하

〈부의장〉 최길영, 박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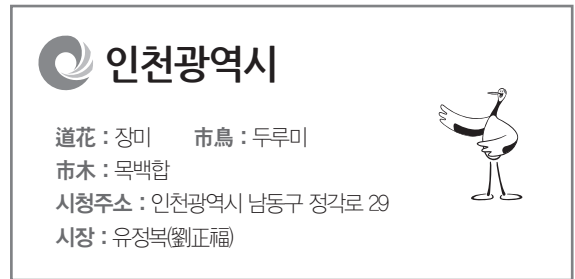
〈정당별 의석〉 자유한국당 24명, 바른정당 3명, 더불어민주당 1명, 국민의당 1명, 대한애국당 1명이다.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를 두고 있다.

**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외에 윤리특별위원회,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추진 특별위원회, 대구 취수원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대구·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2017년도 시의회는 정례회 2회 59일

간, 임시회 6회 76일간으로 총 8회 135일간의 회기를 가졌다. 회기 내에 14명이 21건의 시정질문, 24명이 61건의 5분 자유발언을 했다.



## 개 관

**연 혁** 문학산·계양산 등에서 발견된 각종 석기류로 볼 때 인천에 사람들이 모여 거주하기 시작한 때는 신석기시대 이후인 것으로 추정된다. 학익동·주안동·문학동 등에 분포된 지석묘(支石墓)는 청동기시대에 부족 세력이 자리했음을 보여준다.

삼국사기 지리지(三國史記 地理誌) 등에 의하면 인천은 삼국시대 초기 백제에 속해 미추홀(彌鄒忽)로 불렸으며, 고구려의 영토였을 때는 매소홀현(賈小忽縣)이었다. 진흥왕 때 신라의 영토가 됐고, 통일신라시대 경덕왕 16년(757년)에 소성현(郇城縣)으로 개칭돼 울진군의 영현이 됐다.

고려시대에는 소성현이 수주(樹州)에 속했다가 숙종(1096~1105년) 조에 모후 인예태후의 출생지라 하여 경원군(慶源郡)으로 개칭, 승격됐다. 인종(1122~1146년) 조에도 모후 출생지라 하여 인주(仁州)로 다시 개칭, 승격됐다. 공양왕 2년(1390년)에는 칠대어항(七代御鄕) 7대에 걸쳐 다섯 왕비가 나온 곳이라 하여 경원부(慶源府)로 승격 개칭됐다.

조선 태조 원년(1392년)에 경원부가 인주로 환원됐다가 태종 13년(1413년)에 인천군으로 다시 격하됐다. 세조 6년(1460년)에 이르러 세종비 소헌황후의 외향이라 하여 인천도호부(仁川都護府)로 승격돼 말기까지 이어졌다. 고종 32년(1895년) 지방관제 개정에 따라 전국을 23부로 나눌 때 인천은 인천부(仁川府)로 개편됐고 건양 원년(1896년)에 다시 경기도 인천부가 됐다.

1910년 조선이 주권을 상실하자 조선총독부 관제에 의해 부(府)가 됐고 부세확장에 따라 부평(富平)의 대부분을 포함했다. 광복 후 1949년 8월 15일 실시된 지방자치제로 인천부에서 시(市)로 개칭됐다.

1981년 김포군 계양면, 옹진군 영종면·옹유면 등이 편입됐다. 1995년 1월 1일 인천광역시로 명칭이 변경됐다. 1995년 3월 1일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 경기도 강화군 전역과 대부분 면을 제외한 옹진군 전역,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광역시에 편입됐다.